

국제표준화 소식

ITSC(지역간 전기통신 표준화 회의)의 활동 소개

1. 도입

CCIs(CCITT와 CCIR)가 주도하는 국제통신 표준 작업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 CCIs는 ‘멜버른 정신(Melbourne Spirit)’을 구현하기 위한 단체로, 멜버른 정신이란 조직의 현대화, 유연성, 효율성과 CCITT Resolution 17에 기술되어 있는 권고사항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효성 있는 방법과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T1위원회는 비공식적인 표준개발 기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CCIs의 표준화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어떻게 시장수요를 처리할 것인지 그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와 같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ETSI, TTC 그리고 CCIs는 지역간 통신표준화회의(ITSC)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글은,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들에게 ITSC 활동을 이해시키고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ITSC의 활동 영역 확대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도달한 합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2. 현재까지의 ITSC 활동과 주요 성과

2.1 목표

ITSC의 활동은 국제통신 표준기구로서의 CCIs의 탁월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은 국제 표준을 제작하는 일에 있어서 시장수

이 글은 일본 TTC 자료를 번역·개재한 것입니다.

요를 반영하는 관리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2.2 ITSC 1

최초의 ITSC는 ETSI, T1, TTC와 CCIs가 참여한 가운데 멜버른 정신을 육성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1990년 2월, 베지니아주 프레데릭스 버그에서 개최되었다. 표준화 작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진행중인 작업에 관심을 표명해왔던 표준화 기구들은 ITSC의 임무와 역할, 실효성 있는 방법 및 기타 문제들에 관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고 토론이 끝나 후에 그들은 아래와 같은 프레데릭스 버그 계획이라고 알려진 협약을 맺도록 되었다.

- 1) 지역 및 국가통신 표준화 기구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한다.
- 2) CCIs의 주도권을 보장한다.
- 3) 지역 및 국가표준 담당기구를 개발하고 CCIs의 표준 작업에 관한 효율성을 중대한다.
- 4) 전세계적 표준화 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ITSC 회의를 정례화한다.
- 5) CCITT 위원장을 특별 그룹이 주최하는 회의에 초빙하고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들 특별 그룹은 GSMM(Global Standards Making Management)와 EDH (Electronic Document Handling)에 소속을 둔다.
- 6) 지역 및 국가기구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CCIs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GSMM 산하의 특별 그룹이 개최한 최초의 모임은 1990년 6월에 개최 되었으며, 작업 항목, 작업 계획 그리고 회의 개최일에 관한 공개토론이 있었다. 참여한 지역 및 국가기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활동 분야는 아래와 같다.

- 광대역 ISDN(Broadband ISDN)
- 정보망(Intelligent Networks)
- 통신관리망(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Network)
- Universal Personal Services
-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
- 협대역 ISDN(Narrowband ISDN)

이러한 5+1 분야 중, 이 시행을 근거로 광대한 영역인 ISDN의 기술적 개념과 작업 계획에 대한 정보 교류는 상호협약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B-ISDN에 관해 협동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기술지도자회의(Technical Leaders' Meeting)를 개최하기로 동의하였고 이 회의는 1990년 8월 시카고에서 열렸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들에 합의하였다 :

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 교환 :

- 지역표준화기구(RSOs)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연구분야 : video, generic flow control, etc.
- 모든 지역표준화기구가 중요시하는 연구분야 : signaling, traffic management

나. 정보 교환 방법

CCITT에서 어떤 위치를 구축하기 전에 서로가 기술적 배경사상을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IEEE워크샵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다. 최초의 B-ISDN 워크샵은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991년 3월에 개최되었고 두번째 워크샵은 일본의 미야자키에서 1992년 4월에 개최되었다.

전자문서 처리(Electronic Document Handling) 그룹은 1990년 6월에 최초의 회합을 가졌고 전자게시판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신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요건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지간의 회의(teleconferencing)의 이용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게시판을 이용한 시범적 정보 교환에 합의하였다.

2.3 ITSC 2

제2차 ITSC는 1991년 9월 프랑스의 니스에서 열렸으며, 여기에서는 ITSC 활동 방법에 상당한 진보를 가져왔다. 합의된 주요점은 아래와 같다 :

- 1) 관련 보고자와 연계하여 공통 관심항목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유지한다.
- 2) 공조에 관한 개방 워크샵을 조직한다.

(GSMM 특별 그룹은 알맞은 워크샵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그 진전을 결산해야 한다. 워크샵 활동을 위해 특별히 추가로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대신 전문적인 실무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주도권을 갖도록 해준다.)

- 3) 기초 권고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4) CCI 회의에 앞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현재의 연락선을 최대한 이용하고, 조정회의는 비공식 접근방법이 부적절하거나 반대가 있었다고 알려질 때에만 소집된다.
- 5) 표준 EDH 시스템을 시행한다. ISO/IEC의 참여에 대한 조장을 한다.
- 6) 교환되고 있는 문서에 T1위원회가 창안된 문서 분류안(document labeling)을 채택한다.
- 7) 작업 채택 단계에서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
- 8) CCITT 문제에 관해 91년에 개최된 ITSC2 10문서에 있는 T1의 제안을 채택한다.
- 9) 기타 지역 표준화기구(RSOs) (기타 RSOs로부터 인수받은 작업을 포함)의 표준화 작업에 대한 표준 개발을 권장한다.
- 10) 기타 RSOs의 참여를 허용한다.
- 11) 일머(Irmer) 박사로 하여금 CCITT의 우선 사항을 검토케 한다.
- 12) RSOs간의 공조를 통한 노력으로 가능한한 표준화 과정을 앞당겨서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한다. 이때 계획들은 기획에서 실시까지의 준비기간을 2년으로 잡는다.
- 13) 문서 교환은 증대되어야 한다. 이점은 원칙적으로 뒷받침되었으나 이익을 골고루 나누고 유통되고 있는 문서에 대한 무게는 제한받게 된다.
- 14) 다른 이해 당사자가 상호 이익을 제공해주는 적절한 ITSC 활동에 그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와같은 과정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
- 15) 다른 조직의 회의/행사의 발전 가능성으로부터 이들을 얻기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 16) ITU의 계획 일정은 최소한 18개월 정도 앞당겨서 수립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RSOs 계획 일정은 공통의 관심 주제가 실용화될 수 있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정보는 전자 수단을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3. 미래 연구

표준 개발에 대한 과정은 세 단계를 거친다 :

- 계획 (planning)
- 전개 (development)
- 조정 (coordination)

ITSC 2에서 합의한 항목들은 아래와 같은 범주와 조화를 이룬다 :

가. 계획 :

항목 7) 작업 채택단계에서의 정보 교환

항목 8) CCITT Questions에 관한 작업 항목의 조정

항목 11) CCITT 우선 사항

나. 전개 :

항목 1) 연계 보고자 리스트

항목 2) 개방 워크샵의 조직

항목 5) 표준 EDH 시스템의 시행

항목 6) 문서 분류 (document labeling)

항목 9) 표준 (다른 RSOs로부터 작업을 인수한) 개발의 장려

항목 10) 기타 RSOs의 참여 허용

항목 12) 협조에 대한 노력

항목 13) 문서 교환

항목 14) 과정의 확대

항목 15) 실용주의적 접근방식

다. 조정 :

항목 3) 제안에 관한 정보교환

항목 4) CCI 회의에 앞서 조정을 위한 교섭

지금까지의 개방 토론은 표준개발 과정의 각 단계를 합리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대책들에 관해 연구되어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항목도 이제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이르렀고, 연구가 필요한 것은 8번 항목으로, 이것은 작업항목, 우선사항, 그리고 작업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었다. 부연하자면,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한가지 문제란, 각 표준기구가 그 문제를 연구하고 RSOs 사이의 개념을 조정하기 위한 한 기간의 창안 과정에 있어서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GSMM의 활동상황에 대한 검토이다. 표준 개발의 방법과 같은 표준 창안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합리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GSMM 1과 2회의에 앞서 많은 계획들이 제출되어 왔고 이러한 계획들은 거의 모두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작업 과정에 있어서 진행중이다. 앞서 이 회의에서 동의했던 항목들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아직도 남아 있고 이 연구분야를 조정하는 작업은 CCIs가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GSMM 회의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공통의 관심분야를 가진 기술 지도자로부터 나온 활동보고서를 청취하는 일은 프로그램 경영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다른 기술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일이고 이와 같은 일은 GSMM 회의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ITSC가 미래의 표준 창안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의 발전이 기대되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각 나라는 그들 나름의 표준을 창안하고 있고, 그러한 표준은 마지막 단계에서 CCIs에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각 나라는 타협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조정작업은 번거롭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Recommendations는 어느것 하나도 합의에 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Recommendation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종종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현

재의 ITSC의 활동은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수년동안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활동한 결과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전부터 표준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